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23년 6월 18일(주일) 제1447호

드디어 이번 주 마리아행전!

사진은 지난해 마리아행전.

6월 21~23일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 유기성 목사, 이한영 부총장, 이재훈 목사 설교

드디어 이번 주 여성기도 부흥운동 마리아행전이 막 오른다. 6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된다. 주제는 '광야의 힘'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집회가 이어진다. 설교는 6월 21일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원로) '광야에서 동행하다', 22일 이한영 부총장(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광야에서 배우다', 23일 이재훈 담임목사 '광야에서 부르짖다'를 주제로 한다.

이번 마리아행전 '광야의 힘'에서는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광야에서 동행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라와 민족, 교회와 열방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한다. 6월 21일과 22일은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집회실황을 각 캠퍼스로 송출하고, 23일에는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다 함께 모여 연합기도회를 한다.

2023 마리아행전 '광야의 힘' 참가자들은 접수 신청한 캠퍼스로 출석하면 된다. 복장은 가급적 밝은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를 입어야 한다. 본당 입장은 오전 9시 40분부터 가능하다. 행사기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오전 9시부터 서빙고온누리교회와 이촌역 4번 출구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등록 팔찌는 집회 기간 내내 착용해야 한다. 문의: 02-3215-3667, 3201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23 차세대 어드벤처 여름캠프

2023 차세대 어드벤처(Adventure) 여름캠프가 '예수님 이야기: 나는 주의 친구'를 주제로 시작된다. 예수님의꿈아이(이하 예꿈) 7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 꿈이자라는땅(이하 꿈땅)과 파워웨이브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외부 및 국내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에서 이어진다.

예꿈에서는 '네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우와! 예수님이 도우셨어요', '야호! 예수님이 보내셨어요'를 주제로 적용 놀이와 체험활동을 한다. 꿈땅에서는 '부르신 예수님', '도우신 예수님', '보내신 예수님'을 주제로 성경퀴즈와 카드놀이 등을 한다. 파워웨이브에서는 '익투스'를 주제로 여름캠프를 진행한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대학청년부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7월 15~16일 오후 2시 인천 송도 컨벤시아

2023 대학청년부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이하 카운트다운)이 'The Whole Church, Whole Gospel, Whole World'를 주제로 7월 15일(토)과 16일(주일) 오후 2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막 오른다.

올해 카운트다운은 내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4차 로잔대회'를 기도로 준비하는 장(場)이다. 그래서 로잔운동의 핵심가치이자 모토인 '온 교회(The Whole Church)가 온전한 복음(The Whole Gospel)을 온 세계에(The Whole World)!'를 주제로 정했다.

올해 카운트다운에서는 7월 15일(토)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The Whole Church',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The Whole Gospel', 한철호 선교사(미션파트너스 대표) 'The Whole World', 16일(주일) 이재훈 담임목사 'Come to worship', 유기성 목사(위지엠이사장) 'Go to the nations'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카운트다운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각 공동체 전자주보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이다. 회비는 신청 주차 수요일 자정까지 입금해야 한다. 입금할 때 이름과 연락처 끝 네 자리를 함께 적어야 한다(ex. 홍길동8572). 6월 마지막 주부터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는다. 타 교회 성도들도 참가할 수 있다. 문의: 02-570-7523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저출산에 대한 의식 및 교회 역할 조사'

온누리교회 미래성장위원회에서 '저출산에 대한 의식 및 교회 역할 조사 설문'을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도들의 지혜를 모을 예정이다.

6월 30일(금)까지 상단 큐알코드로 접속해서 설문에 참여하면 된다. 대상은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파워웨이브, 대학청년부, 성인공동체)다.

2023 '달려라폼당' 종료

다음세대를 위한 후원챌린지 2023 '달려라폼당'이 끝났다. 올해 '달려라폼당'에는 성도 3,797명이 참가해서 1억1백여 만원을 후원했다. '달려라 폼당' 후원금 전액은 기독 OTT '폼당' 콘텐츠 제작과 '폼당교회학교' 사역에 사용한다. 지난 6월 15일(목)에는 서빙고온누리교회 경찬홀과 온라인(Zoom)에서 '달려라폼당' 시상식을 진행했다.

기독교세계관_ 젠더주의의 거짓과 허구 4면 기획_ 교회가 사라진다! 5면 인물_ "당신이 온누리입니다" 6면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창조의 완성, 안식

창세기 2:1~3

천지창조는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일간의 창조를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만물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여지는 질서를 안식을 창조하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1~3절).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라는 단어가 세 구절에서 세 차례 반복되고, '모든 일'이라는 단어도 세 번 반복됩니다.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의 창조를 완성하셨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서 일곱째 날을 창조 완성의 날로 세우셨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이 그분의 목적과 의도대로 움직여지는 창조질서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간의 창조로 피곤해서 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 안식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창조질서를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피조세계까지도 안식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질서대로 움직여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하나님 창조의 마지막 완성이며,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허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서 마지막 작품이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작품이다."

안식은 하나님 창조의 마지막 작품이자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누리신 안식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 기쁨, 평화, 샬롬, 조금도 갈등이나 부조화가 없는 기쁨에 모든 피조세계가 참여하도록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간 창조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하셨고, "심히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통해서 누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안식, 복되게, 거룩하게

일곱째 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안식하셨고, 둘째, 복되게 하셨고, 셋째,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은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식이 곧 복이며, 복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복이며, 곧 복은 안식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게 공간이 아닙니다. '7일째'라는 시간입니다. 거룩하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카도쉬'는 〈창세기〉에 단 한 번만 사용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구절에서 단 한 번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6일간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6일간 그 어느 날에도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7일째, 7일이라는 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의 안식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에 중요한 창조질서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야 하고, 피조세계도 그렇게 존재해야 한다는 질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6일 창조를 통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되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존재하게 되려면 일곱째 날의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6일간의 창조는 선(善)이며, 7일째 날은 성(聖)입니다. 선의 완성은 거룩함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 여섯 날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7일째 날을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만물의 질서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공간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시간을 마음대로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시간은 인간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멈출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만물은 그저 있는 그 자리에 존재하고 여러 변화 과정을 거치지만, 인간의 이성과 능력으로 때로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구별하기보다 공간을 구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가 신이 어떤 공간에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신전을 만듭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항상 어떤 공간에 가야만 그들이 믿는 신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항상 신은 어디에 있는지, 그 신이 있는 공간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안식을 창조하시고, 제7일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공간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구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구별하지 않으면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허쉘이라는 신학자는 영원을 "시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영"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별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공간을 어떤 특별한 장소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막을 만드시고, 성전을 만드시고, 거룩한 곳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일시적으로 인간에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정한 곳에서 만나게 하신 것뿐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을 하나님이 맞춰 주신 것뿐입니다. 그것조차 하나님이 모두 폐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장소적인 성소가 아니라 시간적인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끊임없이 공간 중심의 세계관에 빠져서 시간을 구별해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인간에게 창조질서에 따른 삶의 패턴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삶 전체 틀을 창조질서에 맞추라!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네가 수고하며 네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네 아들딸이나 네 남녀종들이나 네 가축들이나 네 문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 주고 거룩하게 했다"(출 20:8~11).

“7일 중 하루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 드리고, 구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분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6일 동안은 네가 수고하며 네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쉬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일요일 성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곱째 날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는 사회의 요일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7일째라고 하신 것은 어떤 날로 시작하든지 7일 중의 하루,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완성하게 하는 시간적인 성소를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곧 주일성수라는 역사적 흐름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토요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예배의 날로 지키는 것은 역사적 혁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성수를 주일성수라고 고집하던 또 하나의 잘못된 율법주의를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창조질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요일에 이름을 붙인 것은 문명이 만든 것입니다. 이 패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창조의 완성인 안식을 우리의 삶과 사회의 질서 주기, 일과 안식의 주기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삶 전체의 틀을 창조질서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셨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7일 중에 하루의 시간을 시간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공간을 마음대로 주관하며 살 때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7일마다 하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창조의 질서로 되돌아가는 날을 정함으로써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시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듀크대학의 스탠리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라는 학자가 좋은 말을 남겼습니다.

“안식일이란 단지 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내놓는 것이다. 이것은 시간이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세상을 향한 중대한 도전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

둘째,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안식해야 할 하루에 더 많은 일을 함으로써 경제적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내가 일해야 살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하루의 안식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만나가 내릴 때 안식일 이전에는 두 배의 양이 내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두 배의 공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 실험해 보십시오. 장 칼뱅(John Calv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의 영적 본질과 목적은 인간이 마치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자기 일에서 떠나는 것이다.”

셋째, 진정한 안식일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6일간에 힘써 일하는 노동과 하루의 안식이라는 패턴으로 구성됩니다. 6일간 힘써 일하지 않는다면 하루 안식한다고 해도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은 삶에 단순한 쉼표가 아니라 삶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하기 위해 안식한다는 게 아니라 안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이 세상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하나님의 창조질서입니다. 인류 첫 조상이 무죄한 상태에서 이 패턴을 지키며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죄가 가장 먼저 깨뜨린 게 안식입니다. 안식이 깨어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피조세계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시편〉 95편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불순종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죄와 불순종은 언제나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전체가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3절의 안식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약속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창조의 안식 회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창조의 안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창조 안식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조를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제가 요약한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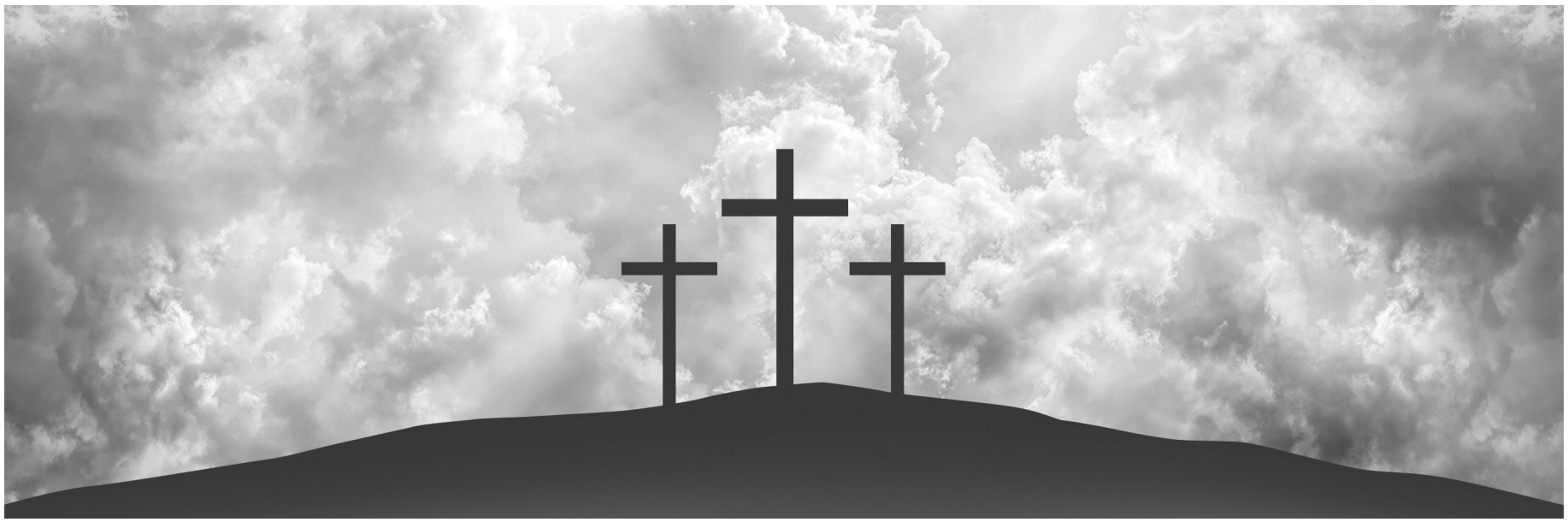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이 왜 복이 있습니까? 안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상태를 ‘영원한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안식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일간의 창조와 하루의 안식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내다보며 이 땅에서 수고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일과 안식의 주기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복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복되다 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신 것처럼, 7일 중 하루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 드리고, 구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삶의 패턴을 알려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회복되고, 체험되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젠더주의의 거짓과 허구

'젠더불쾌증' 혹은 '젠더위화감'(gender dysphoria)은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생물학적 성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정체성의 불일치로 인해 괴로움을 받는 질환을 말한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서는 자신의 성적정체성에 의문을 품은 수만 명의 성별 혼란 아동과 청소년이 갑작스럽고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급발성 젠더불쾌증(rapid onset gender dysphoria)'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2018년 공중보건 연구자인 리사 리트만은 이러한 현상을 학술저널인 〈PLoS One〉에 동료평가를 받은 논문으로 발표했다. 그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춘기에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밝힌 어린 소녀 중에서 65%가 소셜미디어에 장시간 몰두한 것과 연관 있다고 보고했다. 즉, 성별불쾌감의 급증은 자연발생적 현상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전파, 특히 '틱톡'이 중요한 매개체로 등장했다.**

급발성(Rapid onset)이라는 용어는 젠더이념 운동 전반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을 정확하게 묘사한 표현이다. 미국에서조차 "갑자기 이게 어디서 나타났어?"라는 것이 대중들의 느낌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다. "한 세대가 교실에서 배운 것은 다음세대의 정부와 사회에서 믿고 실천할 것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젠더이념은 학계에서 수십 년 동안 눈에 띄지 않게 퍼졌고, 교실에서 가르쳐졌으며, 최근에는 압도적 세력으로 떠올랐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에서는 젠더주의의 독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 조던 피터슨 교수가 탈북해서 남한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 콜롬비아대학에서 공부하고, 북한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박연미 씨를 인터뷰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 현재 미국 대학의 젠더주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의 사상검열과 감시를 벗어나기 위해 남한으로 또 미국으로 왔는데, 훨씬 심한 젠더주의의 검열을 받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표현한다.**

> **"의사, 심리상담가, 교사, 목회자들은 초특급 폭풍의 정체를 명확히 이해하고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젠더주의의 거짓과 허구를 분별하고, 명확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초중고 교과서에 젠더이념과 연관된 용어들이 등장한 지 10여 년이 넘었다. 지난 정부가 선정한 교과서 연구위원들이 젠더이념을 훨씬 더 심화시켜 주입한 내용들이 향후 7~8년 동안 사용될 교과서로 준비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도하에 각 대학들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젠더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를 방관할 경우 급발성 젠더불쾌증을 나타내는 어린 학생들이 지금의 미국처럼 급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성별 혼란이 있는 미성년 환자의 사춘기 중단을 위해 호르몬 차단제를 사용한 최초의 증례보고가 1990년대 후반 네덜란드에서 나왔다. 이 증례보고가 '네덜란드 프로토콜'로 알려지게 되었고, 성별위화감 치료에 선호되는 프로토콜로 전 세계에 퍼졌다. 미국 내분비학회는 2009년 이 접근법을 지지하는 표준 치료지침을 개정했고, 2017년에는 훨씬 강력하게 지지하는 또 다른 지침을 발표했다. 한 명에 대해서만 시도해 본 근거가 미약한 이 증례보고가 유럽과 미국에 급격하게 퍼진 것은 차별금지법과 젠더주의 운동가들의 노력 결과이다.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그들과 연관된 모든 진료지침을 제정하는 의사협회 각 위원회에 반드시 성소수자를 포함하도록 강제했다. 그리고 위원회에 참여한 그들의 의견은 차별금지법 때문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독재적 주장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도 모르는 채 미국의 표준 진료지침을 답습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여 심히 우려된다.**

미국에서 젠더불쾌증에 대한 호르몬 요법이나 전환수술 같은 의료화는 합성호르몬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나 이를 처방 혹은 수술하는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큰 금전적 이익을 보장한다. 사춘기 중지 호르몬, 반대 성호르몬 투여를 통해 전환을 시도하는 사람은 평생 그 호르몬을 사용해야 한다. 질병에 대한 치료가 아니기에 보험이 되지 않아 비싼 비용을 내야 한다. 전환 수술을 통해 반대 성의 생식기능 및 성 기능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저 반대 성에 가까운 겉모습을 향한 끊임없는 성형수술이 반복될 뿐이다. 이는 그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과 의사의 수입으로 연결된다.

현재 제약회사, 의료기관, 의사들은 전환을 위한 '젠더확증치료'의 이론적 근거가 미약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압도적인 전파, 급진적이고 자율적인 자아관에 집중하는 문화의 폭풍과 젠더이념 활동가들의 사회운동 그리고 제약회사, 보험회사, 의료기관, 치료자에게 약속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의 폭풍이 합쳐진 '초특급 폭풍(perfect storm)'을 머지않아 우리 청소년들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취약한 청소년들을 압도적으로 강력한 기관들이 쉽게 착취할 수 있는 유해한 환경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이웃으로 그들 곁에 있어야 한다. 특히 의사, 심리상담가, 교사, 목회자들은 이 초특급 폭풍의 정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젠더주의의 거짓과 허구를 분별하고, 명확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송현진 집사
(강남D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현대 사회는 세속화로 물든 다원주의 시대다. 공중파 TV에서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부모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방영되고, 공교육 현장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개방적 성교육을 해서 성애화(性愛化)되는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 소설, 광고에서는 동성애를 미화하고, 사람의 감정을 자극해서 동성애를 사랑이라 지지하는 일이 절대 선으로 포장되고 있다. 정자은행을 통해 선택적 임신과 출산을 한 연예인의 육아일기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

낙태법 반대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학생인권조례 반대에 대해서는 "나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뭐가 되겠어!"라고 말한다.

책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의 저자 존 스토트 목사는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 사회에 스며들어 세상에 깊이 잠겨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기독교적 확신, 가치관, 기준, 생활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계가 어떤 변화를 거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 축이 '모던'에서 '포스트모던'으로 이동했다. 포스트모던의 핵심은 진리는 공적이라기보다 개인적이고, 객관적이라기보다 주관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각 사람이 진리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있어도 그 누구도 그 믿음의 진실성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도전할 권리가 없다는 생각이다. 다원주의는 세속화(제도교회의 쇠퇴), 종교적 대안들의 부상, 믿음의 본질 붕괴로부터 기인한다.

존 스토트는 이에 대해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좌표를 찍고, 그리스도인다운 독특성을 간직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엄마, 학부모로서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책임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부모로서 자녀가 학교에서 개방적 성교육에 그대로 노출되어 성정체성에 대한 윤리 파괴와 피임 도구 사용에 관한 성적 수치심, 편향된 이데올로기 사고의 수업을 받게 되었다면, 학교 측에 정중히 연락해서 개방적 성교육의 실제 피해사례와 위험성을 전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절제와 기독교 가치관적 성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웃에게는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의 독소 조항에 대한 법리를 인지하고 논쟁이 아닌 설득의 전략으로 그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 대중의 양심을 교육하려 애씀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 힘써야 한다. 대한민국 국군장병의 엄마로서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 법안 발의 추진에는 강력하게 저항해서 군대 내 동성애 강요의 위협으로부터 내 자녀를 지켜야 한다.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의 균형이 깨진 말씀에 감정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자. 귀가 달콤해지는 말씀에는 예리하고 냉정하게 분별할 능력을 갖추고, 상대적 진리에 대한 모호성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의 지성을 갖춰 나아가야 한다.

부모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녀들에게 밥상머리 교육과 가정예배를 통해 크리스천 가정의 아름다운 연합을 보여줘야 한다. 부모의 결혼과 신앙의 자세를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그들도 삶으로 살아내고 싶은 욕구가 생기도록 하는 거룩한 책임이 있다. 복음은 사람과 문화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킨다. 내가 서 있는 가정, 학교, 이웃과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다윗의 물맷돌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이뤄 가실 것이다.

교회가 사라진다! 1. 차세대 2. 청년 3. 중장년 4. 노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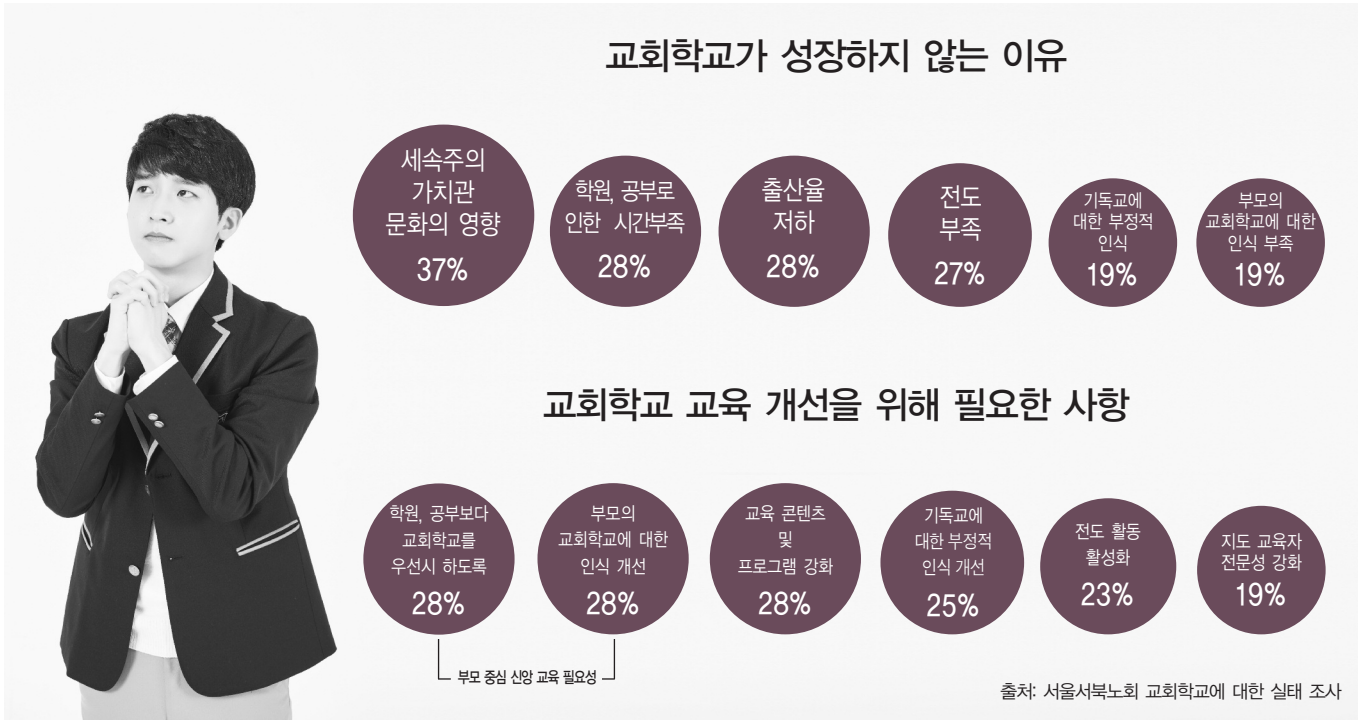
교회에서 차세대가 사라진다!

부모 중심의 신앙 교육이 문제해결 방법

이 시대 교회가 위기다. 역사적으로 교회의 위기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이 시대 교회는 존재 그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지경이다. 말 그대로 교회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요즘 정말 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 엄청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온누리신문에서 이 시대 교회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적인 원인을 찾고, 적절하고 건강한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교회가 사라진다'를 주제로 세대별로 다르게 느끼는 교회의 위기와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그 첫 번째 주제는 '교회에서 차세대가 사라진다'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쌤 저 이제 교회 안 나가요."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던 학생(고등학교 1학년)과 우연히 연락이 닿았다. 그 학생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에 '더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 학생이 초등학생이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고, 그 학생의 부모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이다. 이유를 물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학원 보강학습 때문에 엄마가 교회 나가지 말래요."

이 학생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 차세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학원, 과외, 공부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전국 개신교 중고생 500명을 대상으로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를 했다. 이 조사에서 '지난주 예배를 드리지 않은 이유'를 물었는데, "공부, 과외, 학원 때문에"라는 응답이 50%를 차지했다. 차세대 10명 중 5명이 학업을 이유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다. 같은 질문에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해서"라는 응답도 19%나 됐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뜻이다. 두 응답의 수치를 합하면 69%나 된다. 예배보다 앞서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답변이 70% 가까이 나온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 요즘 차세대에게는 교회보다 학원이, 복음보다 성공이, 예수님보다 선생님이 더 가치 있는 선택지가 되어버렸다.

이 시대 차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의외의 이유

교회에서 차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차세대는 교회의 미래다. 차세대가 사라지면 교회의 미래도 없다. 특히 이미 많은 한국 교회에서 교회학교가 사라졌다. 지방의 교회뿐만 아니라 수도권 교회에서도 교회학교 운영률이 대폭 줄고 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예장통합 서울서북노회 소속 215개 교회의 목사(담임목사 혹은 교육 담당 목사, 1개 교회당 대표자 1명)를 대상으로 '서울서북노회 교회학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서울서부지역과 일산지역 등 도시지역에 있는 교회인데도 교회학교를 운영하는 비율이 57%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43% 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없거나 있어도 그 수가 너무 적어서 교회학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도심 교회 절반 가까이가 교회학교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출생 고령화'라는 사회문제가 한몫한다. 아이가 너무 적게 태어나면서 교회에 차세대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가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다. '서울서북노회 교회학교에 대한 실태 조사'에서 교회학교가 성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세속주의 가치관 문화의 영향'(37%)을 꼽았다. 그 다음이 '학원, 공부로 인한 시간 부족'(28%), '출산율 저하'(28%) 등의 순이었다. 이 시대 차세대들이 신앙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게 더 많다는 의미다. 이 시대 차세대에게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곳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와 비슷한 연구결과가 또 있다.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크리스천 청소년 절반 이상(52%)이 하루에 신앙생활에 활용하는 시간이 5분도 되지 않았다. '아예 할애하지 않는다'(28%), '5분 이내'(24%), '5~10분 이내'(14%), '10~30분 이내'(14%), '30분~1시간 이내'(13%), '1시간 이상'(7%) 순이었다.

이미 한국의 차세대들에게 출세와 성공이 인생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다. 차세대들이 그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을까 염려된다. 세속주의(世俗主義) 가치관에 물들어 있을까 걱정된다. 교회에 가는 것보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중요하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게 유익하다고 여기는 현상을 보면서 그 우려가 현실일까 몹시 두렵다.

차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세 가지 방법

옛말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다.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밖에 없다. 부모는 자식에게 공부보다 말씀이, 세상의 성공보다 올바른 신앙이 훨씬 가치 있다는 진리를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 시대 차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심각한 위기도 '부모 중심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지난해 실시한 '서울서북노회 교회학교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교회학교 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학원, 공부보다 주일 교회학교를 우선하도록 인식 전환'(28%), '부모의 교회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28%)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정에서부터, 부모 먼저 신앙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차세대의 건강한 신앙, 교회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양육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자녀의 신앙 교육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온누리교회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양육 프로그램이 정말 많다. 회복사역본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부모성장학교 '파워임팩트', 가정사역본부에서 운영하는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두란노에서 운영하는 '두란노아버지학교'와 '두란노어머니학교' 등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둘째, 자녀들이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유익을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아주 좋은 교육이다. 한 달에 한 번씩 자녀와 함께 '신앙교육여행'을 떠나보자. 신앙의 선배들이 사역했던 교회를 찾아가고,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이 잠든 선교사 묘지를 방문해도 좋다. 기독교 역사박물관을 찾아가 자녀와 함께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고, 체험해보는 것도 좋다. 온누리신문에서 한 달에 한 번 '가족과 함께 떠나는 신앙교육여행지'를 소개하고 있다. 참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차세대의 신앙 성숙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다. 부모가 먼저 주일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읽고,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그 모습을 배운다. 자녀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고,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유익하다.

차세대는 교회의 미래다. 교회에 차세대가 없으면 결국 교회가 사라져 버린다. 차세대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복음을 전수해야 한다. 성적, 돈, 명예보다 예수님 사랑이 귀하고, 값지다는 진리를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바로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자, 성도의 사명이다. 교회가 사라지는 비극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당신이 온누리입니다

“그들을 방관하지 말아주세요!”

‘만나하우스’ 섬기는 송병민, 홍주화 부부

‘만나하우스’가 문을 열었다. 가정 밖 위기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보육원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한 무료급식소다. 지난 6월 11일(일) 강서구 강서로 33길 27(화곡동)에서 만나하우스 개관예배를 드렸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와 주영광교회(임귀복 담임목사), (사)위키코리아의 연합사역 열매가 맺혔다.

그 아름다운 예배 자리에서 송병민, 홍주화 집사 부부(강남B공동체, 선한울타리사역팀)를 만났다. 그들은 만나하우스 장소를 평생 무상임대했다. 부부의 헌신 덕분에 만나하우스가 문을 열 수 있었다. 송병민, 홍주화 집사 부부는 은행 빚까지 져가며 무료급식소 사역을 섬기고 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방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송병민, 홍주화 부부(강남B공동체)가 만나하우스 앞에서 활짝 웃고 있다.

“산 입에 거미줄 치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모두 ‘식’(食)과 관련 있는 속담이다. 산 입에 거미줄 칠 수 없듯이 아무리 살림이 어렵고, 식량이 떨어져도 사람은 먹고 살기 마련이고, 죄짓고 포도청(경찰청과 같은 조선시대 기관)에 들어갈지언정 굶고 살 수는 없다는 의미다. 그만큼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중요한 먹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가정 밖 위기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보육원 보호종료아동)들이다. 부모가 있어도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회적 제도 밖에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 안타까운 이들이다. 건강한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줄 어른과 보호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소외된 이들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보육원을 나와야만 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만나하우스’는 바로 그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곳이다.

언제 밥을 먹게 될지 몰라서 폭식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가정 밖 위기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보육원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한 무료급식소 만나하우스가 문을 열기까지 송병민(통증의학과 전문의), 홍주화(치과 전문의) 집사 부부의 헌신이 있었다. 송병민, 홍주화 집사 부부가 위기청소년에 관심을 가진 것은 지난해 5월경이다. 보육원을 퇴소한 청소년들의 삶이 불안정하다는 뉴스를 접하고부터 계속 마음이 안 좋고, 신경이 쓰였다. 그들을 무작정 도와주고 싶었다. 가능하면 교회가 앞장서서 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우연히 제이홈(입양위탁사역팀) 세미나를 알게 되었다. 궁금한 마음에 참여했다가 선한울타리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사회선교본부 선한울타리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보육원 아동결연 및 후원하는 ‘열린울타리사역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영광교회와 함께 위기청소년들과 자립준비청년을 돕는 ‘푸른울타리사역팀’이다. 송병민 집사는 푸른울타리사역에, 홍주화 집사는 열린울타리사역에 참여했다. 선한울타리사역을 하면서 (사) 위키코리아 대표 임귀복 목사(주영광교회 담임)와의 귀한 만남도 이어졌다. 송병민, 홍주화 집사는 주영광교회와 임귀복 목사를 만나면 만날수록 참 귀하다고 느꼈다. 주영광교회는 가정 밖 위기청소년들을 보살피고 섬기고 있다. 임귀복 목사는 위기청소년들의 엄마로 통하고 있다.

주영광교회 임귀복 목사와 함께 사역하면서 안타까운 사정을 가진 청소년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다. 그때 임귀복 목사가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급식소를 운영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돈이 없어서 끼니를 못 때우는 청소년들이 태반이었기 때문이다.

“한번은 한 청소년이 샤브샤브가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에 데려갔더니 엄청나게 먹더라고요. 말 그대로 폭식(暴食)을 했습니다. 음식이 식도까지 차면 토하고 또 먹었습니다. 알고봤더니 언제 밥을 먹게 될지 몰라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먹어야 했기에 폭식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 안타까운 청소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게 더 놀랍고 안타까웠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뿐입니다”

송병민, 홍주화 집사 부부가 무료급식소사역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었다. 한 청소년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임귀복 목사님 부탁으로 16주 동안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16주 성경공부를 잘 마치고 쫑파티도 함께 했는데, 이틀 뒤 한 청소년이 극단적 선택 시도를 했습니다.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임귀복 목사님은 그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 시도 흔적(상처)에서 예수님을 봤다면서 펑펑 우셨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화곡역 일대 부동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다. 청소년을 위한 무료급식소로 활용할 공간을 찾는 일이 어려웠다. 정말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장소가 적합하면 예산이 맞지 않고, 예산이 맞으면 장소가 적당하지 않았다. 또 문신한 아이들이 같은 건물에 들락날락하는 것에 거부감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다. 기껏 인테리어와 시설을 설치했는데 나가라고 하는 임대인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을 많이 했다. 그래서 송병민, 홍주화 집사가 놀라운 계획을 세웠다. 상가를 아예 매매하자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해 12월 31일, 지금의 만나하우스 장소를 발견했다.

“보자마자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장소’라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서 부동산 사장님과 임귀복 목사님, 우리 부부가 손잡고 기도회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 장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장소가 맞았다. 예산을 훌쩍 넘는 가격이었는데, 부동산 사장님 도움으로 공시지가의 50%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었다. 장소 소유권을 넘겨받은 날 부부는 곧바로 (사)위키코리아에 무상임대를 했다. 송병민, 홍주화 집사 부부가 이렇게까지 큰 헌신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위기청소년 사역 중에서 무료급식소 운영이 가장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력도, 재정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잘 몰랐던 저는 ‘아프리카에서도 급식소를 만드는데 한국에서 왜 못 만들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겁이 없었습니다(웃음).”

왜 송병민, 홍주화 집사 부부라고 망설임이 없었을까?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헌신했다. 은행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셨다.

아무리 그래도 무료 급식소 운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닐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그들에게 송병민 집사가 이렇게 말했다.

“하용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가든지 보내든지’, ‘방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세요’입니다. 저는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같이 사는 청소년들을 도저히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고 계십니다.

한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도시락 하나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부부도 그 아이처럼 겁 없이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만나하우스를 돕는 개미후원자들이 많이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가만있지 마십시오. 방관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손잡아주십시오. 혼자 하면 힘들지만, 같이 하면 못 할 일이 있겠습니까?”

문의 : 사회선교본부(02-3215-3434)
위키코리아(010-9010-3710)

중독의 열매는 결국 죽음!

중독에 대한 기독교상담 관점

배시은 박사
(온누리상담센터 수퍼바이저, 개신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겸임교수)

얼마 전 뉴스에서 미국의 '좀비마을'이라 불리는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 대한 보도를 접했다. '펜타닐'이라는 중증환자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된 사람들이 마치 좀비처럼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이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영화나 외국에서 볼 수 있었던 마약 관련 뉴스를 자주 보게 된다. 과거에는 연예인, 재벌가 자제들에게서 나타났는데 이제는 일반인들 특히 젊은이들이 마약사범으로 드러나고 있어 미래세대가 걱정되고 불안하다. 더는 마약청정국이 아닌 현실이 낯설기도, 당황스럽기도 하다. 이제 약물 중독은 특정한 누군가의 일이 아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의 삶을 위해 바쁘고 빠르게 살아간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맞춰 살아가는 과정에서 고통에 놓이게 되고, 그 고통을 피하고자 물질을 사용한다. 나도 모르게 어느덧 중독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지금 당신이 의존하고 있는 물질이 있는가? 그 물질이 없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은가? 이번 글에서는 마약과 같은 물질중독에 대해 알아보고, 그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마음 상태에 대해 알아보겠다.

중독의 종류와 특징, 원인

우리나라에서 금지하는 마약류는 천연 마약(아편, 헤로인, 코카인 등)과 합성 마약(메사돈, 염산, 페타민, 펜타닐 등)으로 나뉜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된다. 마약류 물질은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거나 억제해 진통 효과를 보이기도 하고, 도취감, 환각, 환청, 환시 등을 일으킨다.

미국정신의학회에 따른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DSM-5)에 따르면 중독(Addiction)은 물질관련장애와 비물질관련장애로 나뉜다. 독성물질에 의한 신체적·물질적 중독과 정신적·행위적(의존적) 중독(Addiction)을 동시에 일컫는다. 라틴어 어원 'Addicene'는 양도하거나 굴복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데, 잡혀서 감금되거나 노예가 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간이 중독에 이르면 뇌의 보상체계가 강제적으로 작동해 점차 뇌 활동을 손상시키고, 자기통제감을 잃게 되고, 물질에 의존하게 되고 신체, 정신, 영적 기능이 어려워져 결국 죽음에 이른다.

중독의 행동적 특징은 내성(耐性)과 금단현상이다. 내성은 바라는 정도를 위해 같은 양의 물질이 효과가 없어서 그 양을 증가시켜야 하는 증상이다. 금단현상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특징적인 금단증후군이 나타나거나 금단증상을 없애기 위해 물질이 필요한 경우이다. 마약에 중독된 경우 점점 많은 양, 점점 강한 작용을 하는 마약을 사용하게 되고, 마약을 하지 않는 경우 불안감과 고통이 느껴져 마약을 한 상태가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중독의 정서적 특징은 고통스러운 자신의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마약으로 감정을 처리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짜 감정을 느끼기 어렵다. 따라서 내면의 소외감과 공허감을 보인다. 중독 행위로 인한 부적절감과 죄책감을 보이기도 한다.

> **"일, 도박, 술, 마약, 종교 등에 몰입하고 붙어살아가고 있다면 그 열매는 공허함과 우울, 결국 죽음이다. 참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자."**

중독의 원인이 무엇일까?

중독의 원인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이 중독에 취약한 것일까? 중독의 원인은 크게 생물학적, 심리성격적, 사회문화적, 체계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생물학적 원인은 쾌감과 관련한 도파민, 각성과 관련한 노르에피네프린, 충동성과 관련한 세로토닌의 증가로 인한 뇌의 기능적 문제나 유전에 따른다.

심리성격적 원인은 우울, 불안, 무능감, 수치감,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달래거나 피하려할 때 나타난다. 의존성, 강박성, 충동성의 성격특성은 중독과 관련이 깊다. 자기 스스로 징벌적이거나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채우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특정 물질에 관대한 문화에서 중독이 발생하기 쉽다. 영미문화의 경우 알코올, 마약에 관대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알코올에 관대하다. 필리핀, 라스베가스, 강원도 정선은 도박이 특화된 도시여서 도박중독자가 발생하게 된다.

체계적 관점에서 정서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학대, 성취지향적, 불안, 돌봄받기 어려운 가정에서 성장한 경우 중독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중독인 부모의 행동을 따라할 수도 있다.

성경이 말하는 중독을 이겨내는 방법

성경에는 중독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잠언〉 23장에는 술로 인한 중독증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잠 23:29~35).

〈잠언〉 필자는 술을 마시면 재앙과 근심, 분쟁과 원망,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이 되고,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고,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고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되고, 사람이 때려도 아프지 않고, 상하게 하여도 감각이 없고, 술을 다시 찾게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모습을 〈창세기〉에 등장한 노아와 롯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창 9:20~27). 롯은 술을 마시고 자신의 두 딸과 동침하였다(창 19:30~35). 노아와 롯은 술을 마시고 이성을 잃고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 마비상태로 죄된 행동을 한다.

중독은 치료와 회복, 재활의 단계로 장기적 개입을 통해 치유한다. 치료 과정에서는 입원을 통해 약물치료를 한다. 환자가 더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정상화하는 회복의 단계를 지나 새로운 현실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재활의 과정을 갖는다. 재활 과정에서 상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리학자 코헛(Kohut)은 유아가 자라면서 꼭 필요한 위로와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공감적 대상이 부재할 경우 자기 스스로 채우고, 위로하기 위한 자기애적 행동장애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중독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다. 즉, 마약을 자신의 자아 기능의 일부로 대체하고, 긴장조절과 자기를 진정시키고, 위로하는 기능으로 내적 구조로 삼아 자기의 결함을 채우려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마약을 하면 중독자는 자신을 괜찮게 느끼고, 동시에 연약한 자기를 숨길 수 있다고 여겨져 보상 경험을 한다. 따라서 코헛은 치료자가 중독자의 새로운 대상이 되어 중독자에게 필요한 정서적 욕구를 적절하게 채워서 중독자 내면에 새로운 구조를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새로운 구조가 생기면 더는 마약이 필요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긴장을 조절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코헛이 말하는 건강한 자기대상은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자기대상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전능하며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충만케 하고,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그러나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자신 존재보다 보잘 것 없는 물질에 매여 혹은 붙어 살아간다. 너무나 당연하게 인간의 삶이 공허하고 메마르게 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지 매여서 살라 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독에 빠졌거나 빠진 상태이거나 은혜로 용서하신다. 공허함과 갈망을 알고 계시고 위로하신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고 말씀하셨다. 가지 된 우리가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다면 포도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 건강하게 붙어살아가고 있다면 사랑과 기쁨, 생명을 얻게 된다. 우리가 붙어있는 곳에서 어떠한 열매가 나오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일, 도박, 술, 마약, 종교중독 등 위에서 말한 물질 혹은 비물질에 몰입하고 붙어살아가고 있다면 그 열매는 공허함과 우울, 결국 죽음이다. 나의 삶에서 갈등, 삶의 피폐, 현실 생활의 어려움, 신체적 영적 소진 등이 지속하고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가? 그렇다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참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보기를 바란다.

맛있는 말씀 해설

"온갖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창 1:21)

지구는 온갖 식물과 동물로 가득한 경이로운 세계다. 과학자들은 이처럼 다양한 생명체들에 '계-문-강-목-과-속-종'이라는 복잡한 분류체계로 각각의 이름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은 '동물계-포유(류)강-사람과-호모사피언스종'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체계는 사람이 결국 동물 중에서 한 종이라는 진화론적 해석을 전제하고 있다. 진화론은 물에 사는 생명체가 땅 위로 올라와 양서류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하늘을 나는 새가 되고, 다시 포유류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생명체들의 유전정보 설계도가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지를 잘 알고 있는 현대에도 진화론을 믿는다는 게 믿기 힘든 진실이다. 돌연변이로 유전자가 변화되어 다른 생명체의 설계도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명체의 기본 설계도는 창조된 종류에 따라 다르며 진화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진화론자들은 진화가 눈앞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분류체계의 가장 작은 단위인 '종'을 생명체의 기본 설계도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분류체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종류'를 무시하고, 종류에 따른 절대적 차이와 종류 내의 다양성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종'은 기본 설계도의 기준이 아니고 종류 내에서 다양한 형태들이 나온 것을 표현한 것뿐이다. 생명체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놀랍고 다채로운 유전자 교환이나 돌연변이 등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후손들이 나올 수 있었다. 우리는 사람이면 사람이고, 원숭이면 원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과학적인 분류체계는 종류에 따른 차이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최근 유전자 변형생명체의 정의를 내리면서 중요한 기준을 세웠다. 즉, 분류체계에서 '과'를 넘어선 생명체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넣으면 유전자 변형생명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창조과학적으로 해석하면 '과' 수준 내에서 '속'이나 '종'이 다른 유전자가 들어오는 것은 다양성일 뿐이지만, '과' 수준을 넘는 생명체의 유전자가 인위적으로 들어오면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전정보 설계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류체계의 '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종류'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동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지혜를 주셨다. 성경에도 '어린양, 사자,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특성을 가르쳐주셨고, 까마귀 새끼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셨다. 그리고 종류 내의 다양성은 특별함을 의미한다. 사람마다 독특한 존재이듯이 동물 한 마리 한 마리도 특별하다. 우리는 지금도 종류대로 창조된 다채로운 동물들과 그 종류 안에서 다양해진 후손들로 인해 풍요함과 아름다움과 특별함을 느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특별한 생명체인 식물도 기억해야 한다. 식물도 생명체인데 우리는 왜 생명체를 파괴한다는 가책을 받지 않고 과일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식물을 인프라로 창조하셔서 사람과 동물들을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종류대로 창조된 동물과 식물 외에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아낌없이 공급해주신 놀라운 창조질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그 질서를 힘써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때만 가능할 것이다. 황폐해지고 있는 이 땅에서 종류대로 창조된 생명체들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은일 장로
(성북공동체,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오순절 성령 강림, 하나님 약속의 성취

6월 19일~6월 25일
〈사도행전〉 1:12~3:26

묵상포인트 1: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쓴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다. 기도 중에 그들은 사도를 충원하는 일도 한다. 제자들의 모습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묵상하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이후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약 120명의 무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쓴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자고 제안하는데, 사도의 선출 기준은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다닌 사람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다. 모두가 기도한 이후 제비 뽑은 결과 맛디아가 열두 사도에 포함된다.

묵상포인트 2: 성령 강림을 통해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는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십자가 죽음으로 인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한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증언하는지 묵상하자.

▶오순절에 한곳에 모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다. 각 나라에서 와 예루살렘에 머물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자 태어난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듣는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가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신 거라고 설교한다.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에 마음이 찔린 이들이 어찌할지를 묻는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베드로의 권면에 약 3,000명이 세례를 받는다.

묵상포인트 3: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으로 삶이 변화된 이들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절망 상태의 걸인을 통해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 준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영적, 육적으로 절망 상태에 있는 한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힘쓴다. 그 열매로 모든 백성에게 칭찬을 받고, 믿는 자들의 수가 계속 늘어난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가 성전 미문(아름다운 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한다. 베드로가 은금은 없지만 자신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며 그를 잡아 일으킨다. 사람들이 크게 놀라 행각에 모이자 베드로는 이 치유의 기적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타난 거라고 말한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제자들은 새로운 사도의 선출에 앞서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학업과 직장, 교회의 일들을 놓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간구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한 영혼을 지나치지 않고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인간적인 선의와 구제를 뛰어넘어 참된 복음을 전해야 할 그 한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순 식구를 위해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 식구를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건강을 허락해주시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이름 밝히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A 성도님으로 칭하고 기도제목을 올립니다.

A 성도님은 폐암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폐암을 오래 앓다 보니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어 지금은 왼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계십니다. 집 안에서는 조금 걸어 다닐 수 있지만, 외출할 때는 휠체어를 타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이 불편해서 교회에 잘 못 나오시고, 비대면으로만 만나고 있습니다. 다른 부작용도 겪고 계십니다. 왼쪽 다리 부종(림프절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인해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고 생활하면서 다른 부위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허리와 오른쪽 발등, 엉치뼈에 통증이 계속돼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A 성도님의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A 성도님 몸에서 하루빨리 암세포들이 사라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여호와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A 성도님이 겪고 있는 부작용과 후유증을 회복시켜주시기를 기도해주십시오. A 성도님이 속히 회복되어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기도제목 보내는 곳: hha0@onnuri.org

라떼는 말이야

하나님의 역전(逆轉) 원리

"돈 한 푼에 일희일비하는 제 모습에 가끔 회의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재정관을 가지고 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조언을 부탁합니다, 멘토님!"

140년 전 개신교 복음이 전해진 이후 우리나라는 구한말의 극심한 가난과 일제의 식민 통치로 인한 시련, 6.25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섰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축복이 아닐 수 없다.

1973년 빌리 그래함 목사 초청집회에 50만 명의 인원이 운집해 예배를 드렸다. 그때 빌리 그래함 목사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역사적인 전도의 날"이라며 감동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적 부흥이 대단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고 받아들여질 때 부요한 축복을 함께 주신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국가로 거듭나면서 경제적 축복을 풍성하게 주셨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지 않고, 그 축복을 겸손하게 사용하지 못하며, 탐욕과 이기심에 젖은 세속적 물질주의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졌다. 외형은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내적으로는 탐욕과 경쟁심이 가득하다. 모으고 쌓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에만 몰두하는 황폐한 삶이 되었다. 쌓아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재물을 우상 삼는 죄악을 저지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크리스천 청년들은 어떤 재정관을 가지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올바로 살아내야 할까?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주인은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든가, 저 주인에게 헌신하고 이 주인은 무시하든가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눅 16:13).

누가 재물의 주인인지, 재물의 소유권에 대한 가치관이 바로 서야 재정관이 바로 선다. 분명한 것은 재물은 다스려야 할 존재이지 섬겨야 할 존재가 아니다.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은 영화에서 상상하는 사탄과의 한판 싸움이 아니다. '누구의 다스림 아래 살고 있는가?' 의 싸움이다.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지,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갈지를 판단해야 하는 치열한 전쟁상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라고 명하셨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분이 주시는 모든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재물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감사히 받고, 충실히 다루면서 사는 축복을 주신다.

사탄은 지속적으로 "네 재물의 주인은 바로 너"라고 부추긴다. 돈이 내 것으로 인식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탐욕과 질투에 끌려 재물의 노예가 된다. 섬김의 주종관계가 바뀌는 대혼란에 처하게 된다.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심을 씨를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고후 9:10).

매일의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고, 매일의 씨를 심을 곳을 찾아 가장 필요한 곳에 심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과 심을 씨에 맞는 규모 있는 경제를 유지하자. 근면한 노동을 통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 건전한 재정을 만들어가자. 로또나 코인 같은 요행수를 바라지 말자. 광야의 하나님은 매일의 양식 '만나'를 주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고, 그 경험을 믿음의 뿌리로 삼으셨다.

CGN을 후원에만 의지하게 하신 것은 매일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라는 의미일 것이다. 잘 뿌려진 씨가 삶에서 열매를 맺고,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나눌 때 몇 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전(逆轉)의 원리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재정이 더욱 든든해질 것이다.

오범규 장로
(여호수아청년부 멘토)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결론적 공감 vs 과정적 공감

삶은 멀리 떨어져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는 고통스런 경험을 피할 수 없다.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사정을 자세히 들어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과 함께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는 때도 있다. 늘 행복하고 싶고, 행복한 꿈만 꾸면서 살고 싶은데 우리의 삶에는 종종 크고 작은 고통이 뒤따른다. 갑작스럽게 가까운 사람을 잃거나 실직, 관계의 단절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갑작스럽게 겪는 삶의 고통은 너무 큰 슬픔으로 다가온다. 물론 믿는 자들은 고통까지도 결국 은혜로 채워질 거라는 소망을 늘 가져야 한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고통에도 유익이 있다는 것이다.

고통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공감의 마음 그릇이 커진다. 자신이 과거에 당했던 고통과 비슷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누구보다 자신의 일처럼 공감해줄 수 있다. 과거 큰 사기를 당했던 사람은 현재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가슴 깊이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릇을 가지고 있다. 과거 외도 문제로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라면 현재 외도의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온전히 이해하고 격려해 줄 수 있다. 심각한 질병의 고통을 겪었던 사람은 현재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의 마음을 자신의 일처럼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 있다.

고통과 고난은 한 사람을 크게 성장시키고, 마음의 폭을 넓히는 힘이 있다. 그런데 고통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자칫 현재 자신이 겪었던 비슷한 일로 고통당하는 사람의 아픔을 다소 쉽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다 잘 될 거야!", "내가 겪어 봤어"라는 식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무시해버리는 듯한 말을 건넬 수도 있다. 따라서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공감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건네줄 필요가 있다. 이것을 '과정적 공감'과 '결론적 공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고통과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모든 일이 잘될 거야!",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말을 건넨다면 이것은 '결론적 공감'이다. 현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자신이 과거에 비슷한 일을 당해봤고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했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겠지만 돌아보면 별것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잘될 거다"라고 강요하는 권면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슬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눈물 흘려주는 것이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이 겪는 삶의 고통이 각자에게 보석과 같은 자원이 될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결론적 공감'을 해버리면 곤란하다.

가족 간의 불화가 커져서 심각하게 관계가 부서진 부부가 있다. 재정적으로도 큰 빚을 떠안게 됐다. 큰 배신감과 분노로 가족관계가 단절됐다. 감당하기 버거운 짐들만 넘겨받게 됐다. 심각한 우울과 분노로 부부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게 됐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고통과 우울과 분노가 부부를 휘감았다. 그 부부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어렵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눴다. 그 부부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되었던 말은 정말 간단했다. "힘들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등의 말이었다. "힘내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누군가 자신들의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위로가 되었다.

가장 위로가 되지 않는 말들은 "다 잘될 거야!", "정금처럼 연단될 거야!" 등이었다. 그 부부에게 가장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을 한 사람 중에는 과거에 자신들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이들도 있었다. 비슷한 고통과 고난을 겪었기에 앞으로 일이 어떻게 흘러가고, 신앙인이라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될지를 이미 알고 있는 이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 자신에게 말하듯 현재 어려움을 당하는 부부에게 '결론적 공감'을 했다. 문제는 결론적 공감의 말들이 현재 어려움을 당하는 부부에게 전혀 공감도, 위로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부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과정적 공감'이다. "지금 어려운 일이 터졌어요"라고 말한다면 '힘들겠어요' 정도가 가장 적절한 공감이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증오하고 미워했던 가족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생겼는데 아직은 용서하기 힘들어요"라고 말하면 그 시점에 맞는 공감의 말이나 조언이 필요하다.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쉽게 그리할 수 없어서 정말 힘드시겠어요."라는 수준의 말이 가장 적절한 공감의 언어다.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어?", "빨리 용서해야지!"라는 식의 말은 현재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 '과정적 공감'을 통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이 한 계단 올라가면 그 눈높이에서 마음을 읽어주려고 노력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적절한 공감이 될 수 있다.

고통과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넓은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 너무 이른 '결론적 공감'을 하지 말고, 고통을 겪는 사람의 발걸음에 맞춰서 '과정적 공감'을 해준다면 현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수월하게 고통의 늪을 건널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주변을 돌아보며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이웃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면 좋겠다(히 10:24).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두란노 편집자가 추천하는 '놓치기 아까운 책'

성화는 필수 항목

〈생활 거룩〉
강정훈 저 | 두란노 | 12,000원

지올 팍(Zior Park)이라는 가수가 부른 '크리스천(Christian)' 이라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곡 후렴구에는 "I'm still fucking Christian"이라는 자극적인 문장이 반복되어 나온다. 이 노래는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바이럴(Viral)을 타고 홍보 효과를 얻어 음악 차트에서 꽤 높은 순위에 올라가 있다.

이 노래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던 청년이 안티크리스천이 되어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일까? 그는 흑인 음악 플랫폼인 '힙합엘이' 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술 씬(Scene)에 있으면서 느낀 게 크리스천들이 많았어요. 크리스천 같지 않은 애들마저도 크리스천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 라는 생각으로 되게 모순적이고 자기반성적이면서도 풍자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는 결론이 났어요. 인간은 다 모순적인 동물이라면 그다음 스탠스(Stance)는 어떻게 취해야 할까? 비난해야 하는 건가? 그게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에서 쓴 곡입니다."

그의 인터뷰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아니, 한국 교회를 논하기 전에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A씨의 시아버지는 안티크리스천이다. 처음 결혼하겠다고 인사하러 갔을 때 대놓고 "나는 집안일 소홀히 하면서 버는 돈 다 교회에 갖다 바칠 며느리는 들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첫 명절에 시댁을 방문했을 때는 "우리 회사에 교회 장로가 있는데, 맨날 교회 핑계 대면서 야근도 안 하려고 하고 십일조다 뭐다 다 가져다 교회에 바치는 바람에 와이프가 힘들어한단다. 너도 그러냐?"라는 훈계(?)를 하시더란다. 첫인사에 첫 명절,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의 범주 안에 자신을 묶어 놓고 싸잡아 욕을 듣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났다고 한다. 하지만 시아버님이 만난 대다수 크리스천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하니 오히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 말을 나에게 해준 A씨는 "언젠가 아버님이 제 삶을 보며 '예수쟁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구나,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였구나' 라고 인정해주실 때를 위해 기도하며 시댁에서는 더더욱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남편을 잘 섬기려고 해요"라고 덧붙였다.

유대 속담에 "유대인이 되는 것은 쉽지만, 유대인으로 살아가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다. 구원받기는 쉽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다. 한국 교회가 지탄받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 는 되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기희생이 없는 고백은 얼마든지 하지만, 수고와 포기가 따르는 제자의 삶은 거부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앙과 생활의 간극(間隙)을 좁혀야 한다. 신앙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예배가 되며, 삶이 전도가 되는 삶이 '성화' 다. 성화는 성품과 행위의 영역이다. 성품으로 시작해서 일상생활에서 드러나야 한다. 성화는 자신을 위하지만 동시에 타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초의 미국인이라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기독교인이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열쇠 구멍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의인스럽지 않다면 어떻겠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크리스천이 오히려 그 구멍을 막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기회가 아마 영영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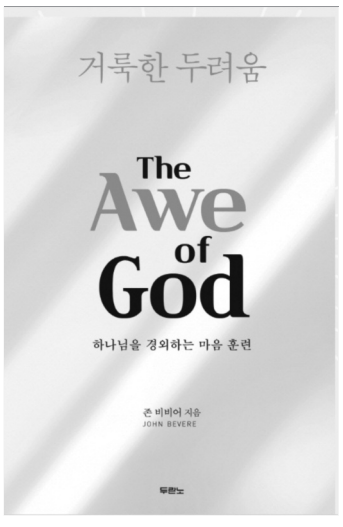
책 〈생활 거룩〉은 제목 그대로 크리스천이 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야곱의 삶을 들어 설명한다. 개인의 신앙이 구원에만 머물러있는 것 같은가? 신앙이 성장해서 삶에서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가? 그렇다면 지금이 성화에 이르도록 삶을 점검하고, 신앙을 점검할 좋은 기회다.

크리스천에게 성화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필수 항목이다. 생활 성화를 통해 한국 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생명력에 불을 붙이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임을 깨달아야 할 때다.

/ 고진주 편집자(두란노 출판 1부)

두란노 신간

건강한 두려움으로!



〈거룩한 두려움〉
존 비비어(John Bevere) 저
| 두란노 | 2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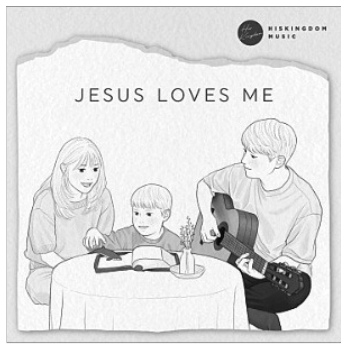
베스트셀러 20종을 쓴 존 비비어(John Bevere)가 신작 〈거룩한 두려움〉을 출간했다. 〈거룩한 두려움〉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를 파괴하는 두려움에서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돕는 지침서다.

구체적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다', '그 분 앞에서 진짜 내가 드러나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훈련',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영원토록' 등을 주제로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는 실전 연습 방법을 소개한다. 책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어느새 '거룩한 두려움' 으로 두려움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 책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비극적인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친다. 생명력 없는 종교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오늘의 힘(Hymn)
'찬송가, 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담다!



'Jesus Loves Me'
준하와 나 편곡

싱어송라이터 '준하와 나' 의 첫 번째 CCM 싱글 앨범이 나왔다. '준하와 나' 는 기타 연주와 편곡 등을 맡은 박종현과 노래와 피아노 연주 등을 하는 김준하로 이루어진 부부 싱어송라이터 듀오 그룹이다. 'Youth', '당신의 곁', '그대 손 잡고' 등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곡들을 만들었다.

'준하와 나' 가 첫 CCM 정규 앨범 발매를 앞두고 싱글 앨범 'Jesus Loves Me' 를 발표했다.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의 익숙한 멜로디를 준하와 나만의 스타일로 편곡했다. 곡과 가사에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한층 더 깊이 묵상하도록 돕는다. 리드미컬한 인트로부터 기타 솔로, 청아한 목소리, 싱그로운 편곡까지 모든 요소가 곡에 더욱 집중하게 만든다.

이번 앨범은 '요게벳의 노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등을 작곡한 염평안(HISKINGDOM MUSIC)이 프로듀서로 함께했다. 드럼은 정동윤, 베이스는 최인성, 디자인은 김모아가 앨범에 참여했다. 화창한 날씨에 커피 한 잔과 함께 들으면 더 좋다. 'Jesus Loves Me' 는 유튜브, 멜론, 지니, 벅스 등 모든 음악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찬양 듣기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

탄소중립 생활 실천

1. 탄소중립 생활 실천이란?
- 한국기후 · 환경네트워크(민 · 관 협력을 통해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에서 추진하는 '기후와 환경을 포괄하는 범국민 실천 운동'

2. 탄소중립 생활 실천의 장점
1) 온실가스 감축 효과
- 한국기후 · 환경네트워크가 제시하는 40개 실천 수칙을 통해 1인당 약 1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2) 경제적 효과
- 전기, 수도, 가스, 유류 등 에너지 절약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3) 안전 효과
- 경제속도 유지,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면 안전 효과 얻을 수 있다.
4) 건강 효과
- 인공조명 사용을 줄이고 자연광을 유지하면 수면과 신체활동,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3.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서약하기
- www.kcen.kr

무료급식소 '만나하우스' 개관

위기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위한 무료급식소

지난 11일, 무료급식소 만나하우스 개관예배. 사회선교본부 선한울타리사역팀과 (사)위키코리아가 협력했다.

가정 밖 위기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무료급식소 '만나하우스'가 개관했다. 지난 6월 11일(일) 강서구 강서로 33길 27(한울H밸리움 B동 지하1층)에서 만나하우스 개관예배를 드렸다.

만나하우스는 사회선교본부 선한울타리사역팀(보육원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역팀)과 (사)위키코리아(위기청소년선교사역, 주영광교회 임귀복 목사)의 연합사역 열매다. 선한울타리사역팀 송병민 집사(강남B공동체)가 장소를 무상 임대했다〈관련기사 6면〉.

만나하우스 개관예배는 송병민 원장 간증, 이기증 장로(온누리교회) 기도, 신기섭 목사 설교, (사)위키코리아 아이들 봉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신기섭 목사(선한울타리사역 담당)는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주제로 설교했다. 신 목사는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주시는 양식이며 보호하심을 나타낸다"면서 "만나하우스에서 청소년들이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족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임귀복 목사(주영광교회, (사)위키코리아)는 "만나하우스는 단순히 밥만 먹는 곳이 아니다"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듯,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청소년들이 만나하우스에서 큰 힘을 얻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명노진 형제(주영광교회, (사)위키코리아 청소년)는 "앞으로 힘들거나 배고플 때마다 만나하우스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3215-3434, 3436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맘앤맘스 힐링캠프

미혼모 가정, 봉사자 등 58명 참석

사회선교본부 맘앤맘스(미혼모, 싱글맘 돕는 사역팀)가 지난 6월 10일(토)과 11일(주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리조트에서 4년 만에 '2023 맘앤맘스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도착예배, 강의 및 소그룹, 산책 및 힐링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는 '슬기로운 엄마 생활'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목사는 "엄마들이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맡겨주신 사명임을 잊지 말고, 엄마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참가자는 "맘앤맘스 덕분에 혼자서는 엄두를 못 냈던 아이와 여행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도 고백했다. 김민영 집사(맘앤맘스사역팀 총무)는 "미혼 엄마들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 삶에 소망이 생기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아 돌봄 세미나'

18일 오후 6시 서빙고 꿈아이홀

사회선교본부 제이홈사역팀(입양위탁 커뮤니티)과 선한울타리사역팀(보육원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공동주최하는 'Orphans Care Seminar'(고아 돌봄 세미나)가 6월 18일(주일) 오후 6시 서빙고온누리교회 꿈아이홀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입양과 위탁, 보육원 아동 결연, 자립준비청년(보육원을 퇴소한 청년) 지원 방법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중보기도를 할 예정이다. 입양위탁에 관심이 있는 성도, 입양 가정, 보육원 아동 후원하고 싶은 성도, 자립준비청년 돕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회비는 없다. 문의: 010-9249-4906

〈생명의 삶〉 표지 사진 공모전

6월 30일까지 1인당 세 작품 이내

〈생명의 삶〉 표지 사진 공모전이 6월 30일까지 이어진다. 믿음, 은혜, 감사 등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일상을 표현한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 중인 〈생명의 삶〉 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세 작품 이내로 제출할 수 있다. JPG 또는 JPEG 파일(작품당 20MB 이내, 해상도 2700X4050 pixel 이상 권장), 표지 적용을 위한 세로형 사진을 권장한다. 보정 없는 원본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생명의 삶〉 캠페인 페이지(www.durannoQT.com)에서 접수하면 된다.

최우수상 1명(상장 및 상금 200만 원, 두플러스 1년 이용권), 우수상 3명(상장 및 상금 100만원, 두플러스 1년 이용권), 가작 5명(상장 및 상금 50만원, 두플러스 1년 이용권), 입선 5명(상장 및 상금 30만원, 두플러스 1년 이용권)을 시상한다. 최종 결과는 8월 중 발표한다.

문의: durannoQT@duranno.com

갈렙선교학교 훈련생 모집

갈렙선교학교 훈련생을 모집한다. 6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101호 또는 온라인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 홈페이지(i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문의: 010-2833-9936

내적치유학교 참가자 모집

7월 21~23일 파주 솔 수양관

65기 내적치유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3040 미혼 청년이 대상이다.

7월 21일(금)부터 23일(일)까지 파주 솔 수양관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7월 2일(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i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60명이다.

내적치유학교에서는 '내적치유와 상처', '역기능 가정의 치유', '학대와 수치심의 치유', '애착의 고통과 회복' 등을 주제로 이기원 목사, 최용준 목사, 정회성 목사, 오은규 목사가 강의한다. 회비는 16만 원(장소 대여, 교재, 간식, 강의 준비물 포함)이다.

문의: 010-6330-7634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서빙고	
■ 가정사역	
노새롬	이연희
장승주	박정준
■ 강촌	
강여울	김미덕
이광섭	심길섭
이미희	이승혜
홍아영	오수연
■ 고양은평	
김나연	한은희
김범수	최형준
김현수	고민성
윤보람	최진주
이정준	황민영
최고야	이미희
한진영	최형준
■ 관악금천	
김명철	조성호
박종우	강창재
박진희	이성미
송명섭	이원일
최승순	김연정
■ 김포	
김진실	홍미례
■ 노원	
정지영	방주희
■ 동대문중랑	
최재연	황윤익
■ 동작	
심미선	이현정
이수정	김유하
전미정	박윤희
최귀자	박자희
■ 마포	
구현정	최현경
노승일	남주헌
송승호	박민규
채민서	박인진
한용철	장장용
■ 북누리	
윤재필	심재욱
■ 서대문	
임미숙	육미혜
조소희	한정순
■ 서빙고	
김선화	박미정
김태형	김형준
이은혜	임서연
■ 성동광진	
강승태	유일권
이남이	김선민
이희섭	국원석
전영미	이창숙
최현범	정광호
■ 성북	
김경석	정승욱
김경수	이영주
김기원	이승민
김동현	이종우
박선이	김춘숙
양미경	박소영
이태훈	박복응
이현우	엄정숙
■ 신용산	
곽지혜	오연성
김현옥	김연정
김현재	김선규
신은혜	손연숙
안정선	차선희
이예린	조은지
조장섭	이채용
■ 양천	
김광호	김동원
■ 여의도	
송후상	김수역
이경실	박인정
홍현정	임명숙
■ 영등포구로	
강두연	이승미
김창범	이명석
이현경	김은영
장지혜	김민아
조홍석	최일섭
■ 용산	
김이진	한인숙
박수정	한정은
박하흰	이현아
이경순	전 홍
정혜경	박인숙
■ 이촌	
사미순	문정혜
이강림	윤영숙
조동현	최재은
조성숙	정순임
■ 중종로	
박영아	이수정
배석원	김진국
이창배	김봉석
■ 찬양사역	
김정환	이주호
장동원	김영욱
■ 특별한초대	
이나실	설지현
■ 한강	
송계숙	이명희
유희상	박윤순
최중락	임현택
한세연	이혜경
■ OCC	
이하영	장문성
■ S브릿지	
고은희	오정은
손홍락	신상국
송택순	감지훈
신경순	김주영
오주희	박영미
유경호	안연환
이진아	양승선
■ 공동체 없음	
박연진	오현주
박인호	안연환
신미순	이성미
안지영	유희수
우정훈	신현덕
장홍준	천형성
정성은	김광순
정혜진	배란희
대학청년	
■ 길	
최영환	김준홍
■ 요셉	
김준엽	양은혁
염미령	이미학
■ 하늘	
장하은	오혜란
최혜원	김수지
■ SNS	
곽소담	김혜윤
권경환	이효범
권세현	조경미
김귀선	이의형
김민주	이경민
김세윤	장원석
김소영	김윤희
김재원	윤영준
김준형	조혁래
김진수	박영미
김태영	왕규호
문병찬	강규진
백은아	문연미
오대영	김민욱
유석진	유시뭉
이기백	이주호
이승열	이규현
이혜준	조미정
정두리	권현우
정성한	민영석
조안나	이정은
조예지	김효선
한아름	이민영
황예훈	윤여희
■ W	
김태영	허연무
최희라	황지원
어린이	
■ 동대문중랑	
전윤호	정은주
■ 북누리	
장은기	장성우
장은서	이수정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자

수료예배: 서빙고 6월 18일(주일) 3부 예배
수료대상자는 오전 11시까지 해당 캠퍼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서빙고 본당 우측 성가대석 앞)
수료예배대상자: 4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완료보고한 성도입니다.

서빙고	박주연	이성재	KIM	엄승현
■ 박성천	박준영	이완복	ANNIKA	유종남
목사반	박철우	임대환	GRACE	이용석
권미현	성영건	정재호		이정은
김능자	손지나	조장은	■ 이영근	이진순
김명애	안정민	최영리	장로반	정성숙
박종매	유선미	홍창우	김요셉	정순국
	이미정	황성훈	박종호	허윤영

▌두란노어머니학교 스태프 간증

러시아를 품다!

/ 김연실 권사(수원영락교회)

'러시아 볼고그라드 어머니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 이번 볼고그라드 어머니학교 지원자들은 2시간 비행기와 24시간 기차를 타고 러시아 각지에서 찾아왔다. 사모하는 마음 하나로 먼 길을 달려온 지원자들은 어머니학교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1시간 전부터 자리에 앉아 기도했다. 어느 선교사 지원자는 볼고그라드에 어머니학교가 열리는 것이 맞냐며 몇 번이나 확인하며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현지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눈물로 적시기에 충분했다. 일흔이 넘으신 연세, 항암 투병 중에도 통역으로 섬겨주신 두 분의 고려인 집사님은 잠시도 자리에 앉지 않고 눈물로 통역하시며 현장을 눈물바다로 만드셨다.

네 번 결혼한 지원자, 18세에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했던 지원자 등 어머니와 아내로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원자들이 많았다. 그들에게는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제사장으로 세우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3일 동안 어머니학교를 통해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해보겠노라고 고백했다. 프로그램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눈물로 고백하는 지원자들을 보며 우리도 함께 울었다.

교수이자 현지인 교회 사모인 한 지원자는 지금까지 자신이 최고의 어머니라 자부하며 살았다고 했다. 그래서 처음 어머니학교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자녀 양육(권력형 어머니의 모습)으로 아들과 관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스태프들에게 프로그램 초반 비판적이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소감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나님은 이번 볼고그라드 어머니학교를 통해 닫힌 마음도 열게 만드셨다.

프로그램을 마친 이후 현지 목사님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땅에 어머니학교가 세워지기를 15년 동안 기도해오셨다고 하셨다. 볼고그라드에 어머니학교 자체 스태프들이 세워지기까지 세 번 더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부름이 참으로 감사했다. 이번 어머니학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이곳에 와야 할 이유를 보게 하셨다. 방문하는 교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며 이 땅을 품게 하셨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눈물 흘리고 계신 이 땅에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사회선교스쿨 수료 간증

묵묵히 그리고 꾸준하게, 우산이 되어주는 온누리교회

/ 민준호 성도(분당B공동체)

1995년 6월 29일이었다. 아버지 생신 선물을 사려고 백화점에 들렀다. 알고 봤더니 여동생도 아버지 선물을 사려고 그 백화점에 왔다. 서로 그 백화점에 있는지 모르고 쇼핑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했다. 백화점이 무너졌다. 그 유명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에 나도, 내 여동생도 있었다. 다행히 나는 다치지 않았지만, 동생은 건물 더미에 깔려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사건은 나와 동생, 우리 가족 모두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몇 번의 수술을 마치고 회복된 동생은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낮은 이들을 섬기다가 중동지역 선교사로 떠났다. 사고 이후 삶은 덤으로 받은 것이기에 꼭 필요한 곳에 가고 싶다는 게 동생의 생각이었다. 동생과 달리 몇 번 단기선교를 따라갔던 나는 해외선교 현장이 쉽지 않았다. 대신 IT 직종에서 비영리 분야로 진로를 바꾸고 지금껏 국제개발과 비영리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내 나름 직장이 선교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평소 '세상에 이렇게나 교회가 많은데 왜 세상의 많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다. 그 의문을 해소하고 싶어서 사회선교스쿨을 신청했다.

매주 강의를 들으며 사회선교라는 단어적 의미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개인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온전한 창조세계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크리스천으로서 나 자신의 구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값없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 세상의 문제를 바라볼 때 무기력이 느껴지기도 했다. 마주하기 두렵고, 버거웠다. 하지만 이웃들도 하나님이 나와 동일하게 창조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들을 향한 마음을 주셨다.

나는 묵묵히 그리고 꾸준하게 바닥을 다지고, 우산이 되어주는 온누리교회가 좋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향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 일에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세례 간증

이제 나도 예배자

/ 김선순 성도(누리사랑부)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다. 가진 게 너무 없어서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았다. 그러다 너무 힘들고 고단하면 괜히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찾곤 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힘들 때면 혼잣말로 하나님께 기도 아닌 기도를 드렸다. 소원을 말해보고, 도와달라고 애원도 하고 떼를 썼다. 그러다 괜히 감정이 복받쳐 눈물 흘리면서 스스로 달래며 살았다.

하루는 교회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눈에 보이는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간 적이 있었다. 의자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무서운 소리로 울부짖는 게 아닌가.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살그머니 나와 다시는 교회에 가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방언기도였다.

나이가 자꾸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 손이 필요한 일을 찾다가 장애인 활동보조를 하게 되었다. 아주 잘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 내가 맡은 이용자 부모가 온누리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지인에게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교회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교회 선택을 좀처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이용자 부부를 따라 온누리교회에 오게 되었다. 누리사랑부 예배공동체에서 함께하게 되었다.

누리사랑부는 지체장애인들로 이루어진 예배공동체다. 사람들이 밝고 따뜻해 보였다. 한 가족처럼 서로 격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들은 모두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예배드리고 이천만광장에서 잠깐 쉬면서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은 편안함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이용자 부부를 따라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 저도 예배자로서 믿음 생활을 해도 될까요?'라고 묻고 있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데 막상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누리사랑부 총무님께 일대일제자양육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셨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과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 나도 성령 충만한 삶, 지혜롭고 올바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순장학교 수료 간증

순장학교가 참 좋다!

/ 김혜정 순장(마포공동체)

순장님이 3년 동안이나 내게 순장학교를 권하셨다. 매주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의하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고 유익하다는 설명을 빠뜨리지 않으셨다. 3년 동안 강권이 있었지만, 내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아이가 고3이라 힘들어요", "갑자기 아파서 치료받아야 해요"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순장님의 권유를 피했다. 열심히 피해 다녔건만, 올해는 핑곗거리가 없었다. '그럼 진짜 한번 해볼까?', '정말 재미있으려나?'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순장학교를 시작했다. 그런데 순장학교는 전혀 가볍지 않았다. 첫날부터 여러 과제를 받았다. '이걸 매주 해야 한다고? 진짜?' 내 안에 물음표가 마구 떠다녔다. 같은 조에 벌써 순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절반이나 있었다. 어색함과 부담스러움이 몰려왔다. '나 정말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다.

주중에 QT 과제부터 채팅방에 올리기 시작했다. 몇 년만에 하는 워드 작성인지 다시 대학교에 입학한 기분이었다. 버벅거리며 과제를 했다. 나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먼저 올리시는데 내가 못한다고 핑계댈 수가 없었다. 남편에게 궁금한 부분만 5분 속성 과외를 받고 기억을 더듬으며 컴퓨터와 사귀었다.

"아, 맞아 나 성경 공부하는 것 좋아했지. 공부하는 것 즐기던 사람이지."

순장학교를 시작한 지 1~2주 지났더니 그제야 재미있어졌다. 조장님, 조원들과 나눔도 재미있고, 동영상 강의지만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았다. 막막했던 과제도 점점 익숙해져서 편해졌다. 오프라인으로 순장학교를 했으면 더 재미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누리교회와 순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이 귀했다. 예배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배우며 신앙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느낌이다. 주마다 성경 공부하며 CCC에서 훈련받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올라왔다. 김준곤 목사님과 하용조 목사님이 참 많이 그리웠다.

순장학교가 끝나가는 시점이 되어서 순장학교에 참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나는 순장으로 준비가 되었는지 생각해보았다. 고민하고 또 해봐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있는 듯하다. 아직도 배울 게 참 많다. 그럼에도 내가 순장을 맡는다면 순원들을 잘 섬기고 싶다. 나는 순장학교가 참 좋다.

장로칼럼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이상율 장로
(이수공동체)

한누리사역팀은 하나님이 이 땅에 미리 보내신 통일의 마중물 탈북민들이 잘 정착하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우며, 복음 통일의 그날을 준비하는 사회선교본부 소속 사역팀이다.

올해는 온누리교회에서 탈북민예배가 시작된 지 20년 되는 해다. 탈북민 성도 네다섯 명으로 시작된 기도모임이 발전해 2003년 6월 하나공동체 예배가 되었다. 2005년 5월, 故 하용조 목사님의 제안으로 故 주선애 교수님이 탈북민종합회관을 건립하며 본격적으로 탈북민사역이 시작됐다. 그 후에 강서구 가양동으로 이전, 개명하고 한터로 발전했고, 2013년 부천 한사랑공동체, 2016년 남양주 북사랑공동체, 2017년 대전 한누리공동체 예배가 시작됐다. 5개 예배공동체와 하나원사역팀으로 발전했다. 주일예배, 탈북민의 정착 지원, 남녀대학생 기숙사사역, 여성사역, 방과 후 학교사역 등을 섬기고 있다.

지난 4일, 온누리교회 탈북민사역 5개 공동체가 모였다. 양지온누리교회에 200여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연합예배와 잔치를 가졌다.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이훈 목사님의 축하 영상 메시지에 이어서 '새로운 정체성'을 제목으로 이기훈 목사님(사회선교본부)이 말씀 전하셨다. 하나님이 희망하시는 공동체와 복음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비전과 희망이 선포되었다. 20년 동안 변함없는 기도와 후원을 해주신 많은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故 주선애 교수님을 기억하며 유가족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탈북민 사역을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해주신 일목회와 이목회 권사님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님이 빛도, 이름도 없이 탈북민사역을 후원해주신다. 중보기도, 병원비 후원, 차량 지원, 주방 시설 지원, 방과 후 학업 지원, 진로 상담, 기숙사 방문 지원, 미술지도, 피아노 지도 등을 후원하고 있다. 이 지면을 빌려 감사를 전한다.

연합예배 2부에서는 잔치가 열렸다. 송파공동체 권사님이 만드신 파전과 북한식 순대가 잔치를 풍성하게 해주었다. 미니올림픽과 솜사탕 파티는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이었다. 바비큐 파티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 팀장님들이 200인분의 맛있는 고기를 제공해주었다. 장로사관학교 장로님과 집사님 부부가 음식 준비를 섬겨주셨다. 이번 연합예배와 축제는 총괄 PD 되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서 즐겁고 아름답게 진행됐다.

한누리사역이 스무 살 청년이 되었다. 지금까지 긍휼사역을 기반으로 발전된 사역이었다면, 앞으로 20년은 시대에 맞는 변화와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의 탈북민사역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기독 OTT '퐁당'을 탈북민 사역에 어떻게 접목하고 적용하여 탈북민에 대한 복음 전달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가?', 'AI시대에 4C 전략을 탈북민 사역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등 많은 질문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좋으신 하나님이 탈북민들을 향하신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필요한 지혜와 환경을 보여 주실 것이다. 우리는 통일의 마중물 될 탈북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복음 통일의 그때를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릴 것이다. 온누리교회가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을 위해, 이 땅과 열방의 탈북 디아스포라를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 후원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권사칼럼

순종하고 섬겼을 뿐인데…

신용년 권사
(경기A공동체)

오래전 공동체에서 고향 동네 아웃리치를 마치고 나서 어르신들 구원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서 가끔 먹을 것과 선물 봉지를 만들어 찾아뵙곤 했다. 그 후로 우리 네 자매가 의논해서 각자 음식을 준비했다. 언니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던 중에 용돈을 드리면 좋아하시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라 용돈 봉투를 어르신들 한 분 한 분께 드렸다. 이웃 동네 목사님과 함께 정자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다.

보은 아웃리치를 하면서 어르신들의 이름을 놓고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 전화하면서 안부를 묻고, 개인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다. 어르신들이 전화 한 통에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 편찮으신 분들께는 과일을 보내드리고, 농번기에는 구운 계란을 보내 드렸다. 크리스마스에는 성탄 선물, 떡, 엔젤트리 등으로 섬겼다. 그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드린 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된 것 같다.

보은은 거리가 멀어서 자주 만나 뵐 수 없는 게 늘 안타까웠다. 그래서 찾은 곳이 집 근처에 있는 '갈산경로당'이었다. 어느 때나 찾아뵙고 만날 수 있어서 부담이 적었다. 지난해 7월부터 같은 공동체에 계셨던 박인숙 권사님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을 대접하며 섬겼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경로당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경로당에 와서 예수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입을 닫고 묵묵히 섬겼다.

어르신들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면서 그동안 낯설고 거리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사랑이 깊어졌다. 가을에는 김장해드리고, 엔젤트리 선물도 전해 드렸다. 크리스마스에는 15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성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겨울이 오면 된장도 담가드리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도토리묵과 잡채를 만들어서 섬겼다. 차츰차츰 어르신들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하나 되는 것을 느꼈다.

경로당 관리 집사님이 지난봄 위암 판정을 받아 삼성의료원에서 수술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 만날 때마다 손잡고 평안과 소망을 갖도록 기도해 드렸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어르신들이 뷔페에서 점심을 먹는다고 자랑하셔서 우리도 작은 잔치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선물과 떡만 준비하려 했는데, 몇몇 권사님들께 연락했더니 흔쾌히 승낙해서 다섯 분의 권사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찬양과 율동을 연습했다. 음식을 준비했고, 화장품 선물까지 넘치게 준비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과정도 세밀하게 인도하셨다. 평소에는 10명도 모이기 어려운 경로당인데 28명의 어르신이 참석하셨다. 더 감사한 것은 예수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던 경로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벅찬 감격을 경험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이 함께한 모두에게 놀라운 감사와 기쁨을 선물하셨다.

경로당의 연약하고 의지할 곳 없는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그분들의 영혼 속에 영원에 대한 목마름과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목마름과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그래서 오늘은 언제나 행복하다

노치형 목사
(중종로공동체)

예언서에는 각 나라와 열방을 향한 심판과 진노의 선포가 있다. 예언이 선포되던 당시 상황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정리되지 않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와 세계적 상황들 속에서 어떤 것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일지,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어수선하게 흘러가는 악몽 같은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새겨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비록 하나님의 진노 계획이 우리의 앞에 있더라도 말이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당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던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이 정의의 심판을 하시면서도,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강력한 훈계를 실천하면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신다고 선포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한번도 변함없이 사랑하실 거라고 선포한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고 네 자손들을 그들의 포로 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돌아와 평화와 안정을 얻을 것이니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쫓아낸 모든 민족들을 내가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나 너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정의로 훈계해 전혀 처벌받지 않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렘 46:27~28).

예레미야의 선포를 보면서 행복에 대해 묵상해 본다. 아무리 주변이 혼잡해도 아버지의 눈은, 어머니의 눈은 자녀들을 향해 있다. 이것이 사실이다. 그 사랑을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된 하늘과 땅의 행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나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 관한 관심과 사랑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한다. 나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고 위대한 사랑은 절대 흔들리지 않음을 선포한다. 할렐루야!

내가 고통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고, 고통 가운데까지 찾아와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릴 뿐이다. 그래서 찬송을 올려드린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찬양 가사를 기억하며 이런 대화를 떠올려보았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혹시 여기까지 와 줄 수 있겠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이라면 고통 속이라도 찾아갈 수 있음을 고백한다. 실체가 아닌 소리만으로도 극한의 두려움을 겪는 인생이 아니라(렘 47:3) 징벌을 주시지만,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빛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가 임하고 있음을 의심 없는 믿음으로 고백한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나 행복하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쉘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매 첫주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따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다문화 대청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케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31-8048-9446)
캄보디아어 11:00 703호 / 미얀마어 11:00 706호 / 차세대꿈땅 11:00 705호 / 러시아어 14:00 703호 / 몽골어 19:00 706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영어) 주일 11:00 301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일 20:00 304호 / 차세대 주일 14:00 309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온유홀
문의: 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셔틀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홍숙의 권사(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TP 42기 단기선교사 훈련생 모집
기간: 10월 2일~27일 (4주간)
장소: Acts29 비전빌리지
자격: 선교지에서 1~2년간 사역하기를 원하는 자
접수: www.visionvillage.org 홈페이지 신청서
마감: 8월 25일(금)
문의: 031-331-8180, 8213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분야별 개발자(프로그래머) 2명, 정기구독 상담원 1명, 해외저작권 업무 1명
형태: 정규직(수습 및 사용기간 3개월), 주5일 근무(주 35시간)
지역: 서울 서빙고동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 1~4시(추후 주일 연습 재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010-8285-6435

양 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브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 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양재 권사 성가대원 모집
연습: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
문의: 010-8949-1811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를 위한 기도자 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양재 JDS홀
문의: 010-6422-8376

온누리M센터 네팔 쉘터 후원품 모집
모집: 그릇, 접시 등을 포함한 식기류, 프라이팬, 냄비 등을 포함한 조리도구, 6인용 이상의 밥솥, 베게 및 이불 침구류
문의: 정연웅 간사(031-491-9650)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예꿈놀이학교, 샤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6부 19:00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땅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땅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11:30 2층 꿈땅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땅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벨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시안홀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3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20 본당 / 3부 14:10 본당
대학청년(주일) 16:00 본당
영어예배(주일) 16:00 본당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샤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본당), 프라미스U (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40 사랑홀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영종 032.752.7937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9:00 / 꿈탕(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ir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범석
권오향 권용갑 길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완 김영배 김요섭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치형
노희태 렴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천 박천종
박형준 배행삼 백성우 백인규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스티브차 안사무엘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윤길중 윤마리아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길탁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효 정현석 정형권
정회성 제치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최대흥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윤 최종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청훈
한화수 한충희 홍기완 허원희
황종연

◈전도사(전임)
김은혜 김태광 민근홍 신대종
신현민 송동주 송예찬 오현교
유성하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이형목 장지훈 정연상 조은광
주하늘 진선미

◈목사(준전임)
구혜미 조호영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래위 김바울
김병석 김병철 김용산 김은하
김진숙 김종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뉴이엔은 랜디빠딩줄렉스 마주마누룽
박씨마 백승현 비 컬 서영철
싱루아마놈 사가르 에릭마이클스톨즈
윌리엄 이민영 이아르뚜르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윤치연 제인량
존굴레이즈 차제이미 최정현 허효경
황연신

◈전도사(파트)
강귀용 강하람 강현구 권대식
권예람 김가희 김디모데 김동규
김미리 김민수 김반석A 김반석B
김영신 김예찬 김윤아 김의연
김종균 김주영 김정무 김지선A
김지선B 김진희 김태현 김하은
김한빛 김현경 남 혜 민혜영
박미애 박세연 박 성 박성배
박성원 박성훈 박새미 박예슬
박용아 박유진 박은혁 박의력
방예린 배명지 백성주 서예찬
송유진 송선애 신기한 신새벽
신주용 심은섭 안류택 양현모
염경덕 오국헌 오성광 오성민
우승민 우진실 유석현 유요한
유현우 유호동 윤석무 윤종연
윤혜진 이나단 이도열 이명희
이민규 이상은 이소라 이시하라
노리코 이요한 이진수 이정빈
이준수 이준영 이지영 이태호
이 한 이현영 이형준 이휘영
임경미 임노완 임동현 임진숙
임정민 장건우 장광석 장영주
장요한 정기은 정상원 정성민
정은영 정연영 정주영 정희애
제영민 조민희 조슬기 조운식
조준기 지수정 주승환 주찬휘
진유석 최규종 최민정 최명훈
최은영 최혜정 한용태 허영은
홍근영 홍세나 홍슬기 황유일

◈사역장로
강기석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득한
권영석 권용성 권용한 권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열 김명종 김명철 김상섭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묵
김성순 김상인 김수광 김수역
김수웅 김승열 김영수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웅배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인화 김장렬 김재욱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흥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극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호
박영태 박용국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배 문 백남인 백승웅
백호현 백홍기 상병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종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수 엄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완영 유재천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의준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용경
이용하 이우곤 이융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대서 정돈영 정문규
정병균 정보원 정순풍 정영열
정용화 정재탁 정재현 정학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파종 정희원 조항진
조희동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차준구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 명 최선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규종 한덕종
한백진 한양희 한종대 한형식
함공식 함선호 허형석 호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범식 홍종철
홍정표 황영옥 황용오 황의서
황재규

◈시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신익 강은철 강창재 강태욱
고다이라 고영주 곽병철 곽진성
곽희준 권순형 권오습 권오혁
금세종 김경돈 김경학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현 김명훈 김문갑 김민찬
김병순 김병옥 김상집 김상철
김선호 김성균 김성종 김성진
김성철 김성훈 김신원 김영관
김영손 김영욱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용기
김용호 김우호 김 원 김이준
김인선 김장열 김재일 김정민
김정훈 김종완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창석 김철민 김철주
김해기 김현주 김형겸 김형준
김형중 김화선 김화수 김효구
김희준 나광욱 나 영 나영욱
남명현 남상길 남상옥 남윤창
남정진 남주언 노기홍 노하수
라상원 류기범 명영찬 문쌍찬
문영기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명률 박성규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한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중현 박지수 박치완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흥균
박흥선 방찬종 배기영 배승호
백종신 백종욱 서달석 서명수
서병화 서성현 성광제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용 송동섭
송종환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학철
신헌승 심길섭 심효무 심희돈
안동혁 안상헌 양상식 양 웅
양준홍 양춘경 양충식 오 명
오범규 오상록 오성훈 오승탁
오이식 용내문 우승구 원종호
유봉국 유재홍 윤석우 윤석주
윤수민 윤영각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기증 이길수
이남식 이동욱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상도 이상율 이상준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우경 이은일
이인용 이재광 이재춘 이정구
이정근 이종길 이종우 이종철
이진택 이태열 이태환 이학일
이해달 이헌규 이홍선 임 훈
임광순 임병수 임상범 임정열
임현태 임호열 임희창 장경문
장경식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장정열 전영수 전한백
정광열 정명호 정상기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응화
정일영 정제범 정진호 정태경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청구 주재량 진종구 최민철
최봉림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용재 최주관 최한우 최현재
최형수 최호림 하주헌 한복규
한상규 한왕석 한창격 한충희
한필규 함일성 함정철 허 경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영한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충선 홍해남 황병원 황상윤
황성룡 황윤일

◈명예장로
김종수 박동순 박찬구 이승규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장옥룡
정광택 정병주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리차드브릭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은혜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진아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경 김선혜 김성태
김수현 김영찬 김은경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찬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종 남궁진
남민우 남에셀 노성희 노소라
도은경 문예지 문희정 박선희
박아령 박요셉 박윤진 박지훈
박주영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지연
안호진 안희준 오주영 우경진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 준 이강석 이슬기
이애리 이예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영혜 천은진 최숙희 최영균
최은미 최지훈 최희정 홍서영
황지영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권영환 김도균 김철진 김철희
박신웅 박태영 서재범 송재호
유현목 이길탁 이민욱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호석 니시야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마크최 심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중재 정장철

◈부목사
강일영 김기홍 김도일 김명성
김상훈 김성연 김성진 김인숙
김영봉 김정운 김진우 김재형
김창식 김창호 남진숙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종훈 박찬민
박현욱 박효빈 배성우 변범섭
손 담 손미경 신기원 심제헌
심형진 양진범 엄영기 우윤상
유명종 유영순 이경호 이미령
이성은 이성원 이은택 이주영
이정주 이형근 장이삭 장제홍
전상현 전홍천 정동윤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주지은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세반 홍 정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강요안나 고은아 강성효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정옥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혜
서재욱 설산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은희 이용기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윤성준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정선진 정은숙 정혁기
조 단 조민철 주지은 최정수
최진숙 코바야시 메구 쿠보텐치
하청훈 한현희 호산나 황나현
핸슨오 Amos Le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사역장로
강희윤 권덕수 김경덕 김수광
김수호 김현중 남 영 백남인
서인택 신중수 우승호 윤영오
이문호 이정기 임병옥 정길안
한덕종 홍규석

◈시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우중 권오현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박호택 성헌제 손정래 신솔문
여훈필 유형민 이관표 이광철
이상헌 이수성 이은창 이준상
장민용 정헌주 조규배 조성민
조윤행 한상훈 허규회 홍관희
황용인 Henry Park Hyun Chang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달수 김명훈
김연수 김요셉 김종수 윤창근
윤한돈 인정식 임헌식 오명진
정석환 최대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명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수정 김용희
김좌겸 김진용 김홍규 남명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결혼

6월 24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홀
염은철, 김신희(새한교회 목사, 사모)의 아들
염신복(온누리교회)
서근진, 한영숙(인천 에베소감리교회 장로, 권사)의 딸
서지선(온누리교회)

6월 24일 토요일 오후 14:00 양재 사랑홀
김성수, 송미란(여의도침례교회 집사) 아들
김상호(온누리교회)
이하수, 김민자(온누리교회 집사, 집사)의 딸
이윤아(온누리교회)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복)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정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봉사자 모집(단체, 개인 봉사자 가능)
일시: 평일 10:30~13:30 ※점심식사 제공, 시간조율 가능
문의: 김효정 사회복지사(070-4340-2509)

용산구립청파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리
일시: 평일 10~13시(점심식사 제공)
문의: 문소연 사회복지사(070-4340-2542)

재정

모바일헌금으로 더욱 간편하게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헌금 특징
- 이체 수수료 무료
- 모든 금융기관 이용 가능
*사용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의 모바일헌금 캠페인을 참조하세요.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소천

6/10(토) 양재A 이경희 권사 모친상, 강남B 이은경 권사 모친상 고 권영임
6/10(토) 경기A 이한규 성도 부친상 고 이영섭
6/10(토) 하모니 이탁영 성도 모친상 고 이명례
6/10(토) 서대문 정승현 권사 배우자상 고 김봉진
6/10(토) 영등포구로 윤세기 성도 부친상 고 윤의수
6/11(주일) 성북 김경석 성도 부친상 고 김호언
6/11(주일) 용산 박윤옥 집사 모친상 고 김영애
6/11(주일) 강남C 장정희 권사 모친상, 문영표 집사 빙부상 고 박옥초
6/11(주일) 강남E 박영호 성도 모친상 고 김화순
6/12(월) 경기A 이지연 성도 부친상 고 이광희
6/12(월) 동작 김의경 성도 모친상 고 한희수
6/13(화) 양재관리부 고명심 집사 모친상, 정현수 집사 빙모상 고 이정순
6/14(수) 가정사역 김형진 성도 모친상 고 이종례
6/14(수) 용산 이미선 사모 부친상, 권세영 선교사 빙부상 고 이종문
6/15(목) 고양은평 김현철 성도 부친상, 나영주 성도 시부상 고 김성욱
6/16(금) 이촌 은애경 성도 배우자상 고 윤상근
6/16(금) 북누리 박재광 집사 부친상 고 박운용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홍하영, 김다애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내일은 the

행복한 출근

월요일에 예배하러 출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일터생활원리를 배워봅니다!

매주 금요일
'퐁당' 업로드

강사 | 김경민 대표(가인지컨설팅그룹)

CGN 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